Bow and arrow
3 - AUG - 9
Copy ______ 1960
Hwan San
Si Sa Man Hwa Chap Chi

시사만화잡지

활살

№7 (56) 1955. 7

태양은 솟아 오른다

안창수 그림

개들은 암흑의 멸망 속에서 짖을테면 짖어라!
우리는 태양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리라

2년간!

2년 전—전쟁의 불길은 꺼지고 평화의 환호성 드높이 울린 이땅 우에… 지금은 장엄한 건설의 교향악이 더욱 우렁차게 울린다。

침략하는 원쑤들을 끝내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선 인민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력 투쟁에 있어서도 빛나는 승리를 거듭 쟁취하고 있다。

정전 협정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새 전쟁 도발을 위하여 미쳐 날뛰기 시작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의 통치 하에 있는 남조선은 글자 그대로의 『암흑 세계』로 되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모든 거리와 마을들이 처참했던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서 어엿하게 복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방들에서는 학교와 병원 극장 주택 등 웅대한 다층 건물들이 평화와 행복 위해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기세마냥 거연히 솟아 오르고 있다。

어찌 그 뿐이랴… 공화국의 방방 곡곡에 련이여 복구 건설되고 있는 공장들에선 뭉실 뭉실 증산의 연기 솟구쳐 오르고 있으며 보람찬 협동 경리의 성과로 하여 더욱 풍성해 지고 있는 농촌마다엔 뜨락또르의 엔진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다。

정전 후 2년간! 이처럼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자손 만대의 행복을 념원하면서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남반부 인민들은 원쑤들의 전쟁 정책에 따르는 잔악한 착취와 중세기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실로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생활고와 나아가서는 생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신음하고 있다。오늘 미국의 『원조』로 인하여 실업자와 아사 및 견딜 수 없는 생활고로 하여 자살하는 자의 수만 날로 늘어가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또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중독으로 일찌기 찾아 볼 수 없는 참담한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미제 식인종과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에 의한 살인 테로 강탈 강간 등 포악 무도한 만행과 더불어 그밖에 온갖 추악스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사실들은 세계의 모든 량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조선이란 말만 들어도 우선 『인간 생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였다。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도시에서 농촌에서 공장과 학원과 저마다의 일터에서 전망에 빛나는 앞날을 위하여 배우고 로력하며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을 이룩하고 있다。그런데 남반부 인민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처지에서 굶주림과 헐벗음과 지어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발광적인 전쟁 음모와 『원자탄 소동』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조선에서의 이 판이한 두 현상은 곧 쏘련을 선두로 한 평화 애호 민주 진영의 강대한 생활력과 그리고 『서산 락일』의 몰락 일로로만 내치고 있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의 암담상 그대로를 반영하는 축도가 아니고 무엇이랴… 8·15해방 후 10년 간에 걸쳐 조선의 분할과 식민지화를 위하여 발악하여 온 미제는 아직도 전쟁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간악스런 기도를 다 하고 있다。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조선 전쟁이 정화된 후도 계속적으로 정전 협정을 파탄시키려고 발악하면서 『북진 통일』의 허무니 없는 잠꼬대를 되까리고 있다。그리하여 남조선의 학생 및 청소년들을 전쟁의 대포밥으로 강제 동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을 군사 련병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념원하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로력하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앞에서는 반드시 불길 속에 덤벼들은 벌레떼마냥 자기 멸망의 마지막 『불장난』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놈들은 알아야하며 이미 지난 전쟁에서 받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늦벌레 만가」

구 민

5년 전 일이였다네
미국 해생 흉칙한 엄지 늦벌레 한마리
웅진 반도 전호 속으로
기여 들었지……

엄지가 북쪽 가리켜 호령을 치면
새끼 벌레 뇌이였다네
『북진! 북벌!』하고……

백악관에서
『힘의 정책』광상곡 울려……
벌레떼 발 맞춰 기여 들었다네
『한국산』총알받이 앞장 세우고
영국산 토이기산 호주산
숱한 벌레떼 몰아
레다곤의 늦벌레도 기여 들었다네
『유·엔』깃발 뒤에 숨어서

벼룩 들춰 거미 들춰 업고
코레라 페스트균 등속 품에 끼고
떠들석하게 덤벼 들었다네
『어마 어마』한 『곤충 십자군』

『곤충 십자군』의 운명
그것은 세상이 다 아는일—
잡히고 밟히여 깃 녹여졌지
두터운 안개 아침 햇볕에 사라지듯
추잡한 『십자군의 북진』부서졌다네

늦벌레떼 박멸되고 물러나간 자리에선
오곡 다시 푸르러 무르익고
새살림 굳건히 세워 간다네

꽃 향기 그윽히 풍기고
로력의 열매 맺어지는 화원에
벌레떼 어찌 또 기여들리……

그러나 례복과 군복으로 분장했어도
늦벌레는 역시 흉칙한 버러지
탐욕스런 눈초리로 화원을 넘겨다 보네

독기 품은 늦벌레
거품물고 되뇌이는데
새벽에도 『북진』
저녁에도 『전쟁』
분계선 넘어 전호 속에서나
태평양 건너 백악관 안에서나

늦벌레의 흉악한 기도
그것은 마음 놓지 못할 일
그러니 화원을 더욱 싱싱하게 가꾸며
살피고 잡아치워 굳게 지키여
벌레떼 두번 다시 침범 못하게 하리

안창수 삽화

싸우는 조선 녀성들

공화국의 전체 녀성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 전선에서 후방에서 온갖 곤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영웅적인 투쟁을 다 했다。또한 오늘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한결 같이 슬기로운 로력 투쟁에로 떨쳐 나섰다。

—승리 위해 싸웠고…

—행복 위해 건설한다!

최한진 그림

관료주의 대합실

최 복 례

숨 막힐듯한 무더운 밤이건만 창문이 꽉 닫힌 H 제유 공장 지배인 실에서는 김창화 지배인과 리상호 생산 과장 사이에 월말 총화 보고서 토의가 늦도록 계속되고 있다。생산 과장이 생산 실적을 150 프로로 하자고 제의했을 때 «그건 너무 지나쳐 어지간 해야지… 내 생각엔 120 프로로 하는게 좋겠소» 하고 지배인이 말하였다。

이리하여 원가도 퍽 저하되고 원재료 소비도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듯이 보고서가 작성되였다。

«지배인 동지! 보고서가 참 훌륭합니다 이만하면 상부에서도 지배인 동지의 성과에 놀랠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이건 더 중요한 이야깁니다만 지배인 동지께서 어느 딴 큰 기업소 책임자로 영전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겠지요?!»

이런말이 물론 있지 않았으나 생산 과장은 이런 기분 좋은 때에 지배인을 더욱 기쁘게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데서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되여 얼핏 꾸며낸 것이였다。 과연 지배인은 들뜨기 시작하였다。 지배인은 의심쩍 하면서도 한편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아무렴 그렇겠지…김창화가 누구라구— 자기의 감정을 말로써가 아니라 껌벅거리는 눈짓과 으쓱 으쓱하는 어깨짓으로써 표현하리만큼 그는 감동되였고 흥분하였다。«여보! 우리가 몇 프로로 하자 했던가? 암만 생각해 봐도 120 프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애… 적어도 130 프로는 되야 할 것 같소 드라이야와 증열 가마 속에 다 된거나 다름 없는 그 "채 되지 않은 기름"이 많이 있지 않소?!»

«좁은 제 소견에도 그만큼은 되야할 것 같습니다»

생산 과장은 그자리에서 보고서 숫자를 130프로로 재빨리 고쳐 놓았다。

비로소『토의』가 끝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밖을 내다본다。

어둠이 짜 드리운 정거장 저쪽에서 방금 떠나가는 막차 기적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뒤흔든다。착유기의 제2 스윗치가 눌려지는 순간인듯 바른편 건물 속에선 육중한 수압 펌프와 충동기의 요란한 진동이 일어나고 왼쪽편에선 압편 로라의 잉잉 소리가 고막을 찌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여 가나 내게 좀 생각되는 점이 있소 말 많은 집 장이 쓰다라고 몇사람들이 내 마음의 안정을 흔들리게 하오 공연히 서뿔리 할 순 없소 이번 회의야말로 내나 그리고 동무에게도 매우 중대한 모멘트니까……»

«네…뜻을 알겠습니다 함부루 지꺼리지 못하게 미리 톡톡히 맛을 보여 주어야 할죠»

지배인은 빙그레 웃고 고개를 모로 저으면서

«나도 바이 그런 생각이 없진 않소 허나 내게 새로운 방안이 있소 이번엔『평화적』방법을 써 볼가 하오»

«아—그건 참 좋은 방책입니다»

«중요한건 그들의『리해 관계』를 잘 포착해야

하오 일은 간단 명료하오»

단단히 치사 받은 생산 과장이 돌아간 후 지배인은 이런 저런 달콤한 공상에 잠겨 있다가 팡판 뚜껑의 수첩을 펴놓고 한 사람씩 따져 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결국 제유 직장장 박 재순 동무와 녀성 증열공이며 선동원인 김 옥녀 동무의 이름에 ✓표식을 그어 두었다。—이 수다스럽고 말깨나 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인들 안나오리라고 담보할 수가 있어야지? 꼭 만나 보고 적절히 예방 주사를 실시해 두는 게 안전하지—

—그다음 사람들은…그저 그렇지 고달픔 조으름 선하품…회의나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걸—

그는 팔목 시계를 드려다 본 다음 자기『성공』에 대하여 미리 축배를 들 궁리를 하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 × ×

그 이튿날은 지배인에게 있어서 매우 분주한 날이였다。우선 그는 박 재순 동무를 불렀다。지배인은 담배도 권하고 물도 한잔 손수 부어 주면서 갖은 친절을 다 부린다。

«그래… 직장장 동무! 일이 고되지 않소? 일전에 동무는 콩 소비 기준을 1프로 낮추자고 했지요 좋은 창발이였소 나도 그 문제를 아주 심중히 연구해 보았소 나로선 대 찬성이나 그렇게 되면 실수률 제고 문제로 로동자들이 퍽 어려워 할걸요 하여튼 이번 회의나 끝내 놓고 결단 지웁시다。가족이 일곱명이나 된다지요? 저런…생활이 어렵겠군요… —그는 눈쌀을 찌푸리며 걱정하는듯—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리다 그런데 이번 회의 때 제기할 문제가 있소? 총회나 끝난 다음 어디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도자와는 항상 가까이 해야만 모든 일이 잘 되는 법이라이 히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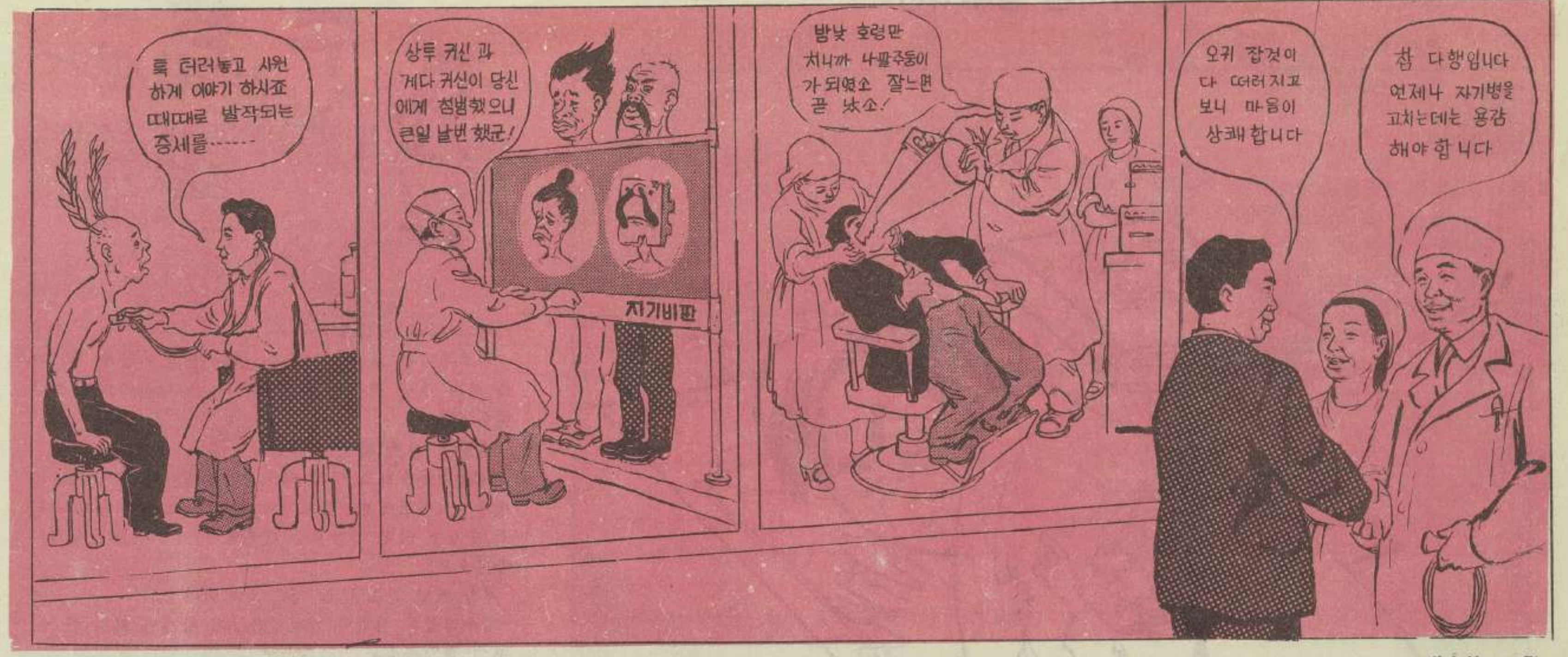
박 령감이 어리벙벙 하여 문어구를 나섰을 때 옥녀가 지배인 실로 불리워 가고 있었다。

야무지게 생긴 얼굴에 맑은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는 옥녀가 지배인 앞에 머리를 숙으리고 앉아 있다。지배인은 안락 의자에 앉아 조렷 조렷 목을 기우적 거리면서 목청을 돋구어 말한다。

『귀여운 동무로군! 수집어 마오 허허허 체질이 약한데 로동하기가 무척 힘들겠군 낯색이 나쁜데 어데가 아프오? 저런… 손에 기름때가 가뜩 묻었소 그려 그건 안됐는데… 동무는 학식도 그만하면 괜찮고 워낙 똑똑하니… 내 사무 부문에 돌려 주리다 간부 지도원에게 벌써 지시해 두었건만 상금 해결 않다니… 그런 못된 관료주의가 어데 있담 이번엔 —하고 그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며— 우리의 성과가 상당하오… 이 성과를 발전시키자면 동무와 같은 이름난 선동가가 한번 멋지게 찬양하고 호소해야 하지요… 특히 지도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조선 녀성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지요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리다 날씨가 매우 더워졌군 —허리를 뒤로 제끼고 배를 내 밀며— 바람도 쐬일겸 고향에 휴가나 갔다 오지 응… 늙은 부모가 귀동딸을 얼마나 보고싶어 하겠소 합숙 생활이 어렵지 않소 내 집에 와 있어도 반대 없소 난… 우리집 네딸짜리 금순이가 동무를 몹씨 따르니까……»

지배인 실에서 나와 자기 기대 앞에 섰을 때 옥녀

관료주의 치료실



박승히 그림

동무는 걷 잡을 수 없는 지배인의 말과 태도에서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끼였다。

그날 오후에 박 재순 령감의 집에는 반가마니가 잘 되는 콩이 운반되였고 옥녀는 «사업상 필요» 에 의하여 생산 과원으로 조동한다는 지배인의 명령서가 발표되였다。

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지배인은 더욱 기뻤고 유쾌하였다。박 령감과 옥녀가 자기를 좋은 지도자라고 지지하며 높은 사업 성과에 대하여 열렬히 찬양하는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니 절로 흥겨운 웃음이 솟구쳐 나왔다。그러면서 어느 큰 기업소 지배인으로 영전되여 첫 연설을 하는 자기의 모습도 그려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층에서 떠들석하고 왈칵 불칵 하는 소동 때문에 그의 단꿈은 그만 깨트러졌다。 그는 그곳으로 황급히 뛰여 내려 갔다。이런?! 생산 과장과 업무 과장이 한창 불이 나게 다투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뻔 하였다。생산 과장이 업무 과장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랑삼아 한바탕 떠버리는통에 그만 생산 실적 130 프로에 대하여 루설해 버렸다。업무 과장이 자기 장부를 생산 과장의 코 밑에 내밀면서 90 프로 밖에 되지 않는 실적이 어찌하여 130 프로가 되였는냐고 따지기 시작하여 생산 과장이 풀따 풀따 뛰게된 것이였다。

지배인은 볼멘 소리로 대뜸 업무 과장에게 소리 질렀다。

«모르면 가만이나 있을게지… 그 숫자는 박 령감에게서 나온 것이요! 내 사업에 함부로 간섭할 권리는 없소!» 업무 과장이 난처해 주저 앉으려 할 때였다。땀을 흠뻑 흘리면서 가마니를 멘 박 재순 직장장이 나타났다。그가 벗어 던지는 가마니 속에서는 콩알이 와르르 쏟아졌다。

«지배인 동지! 이게 웬 콩입니까?»

«오…그걸 가지구 그러오 그건 지배인이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치사 받을 만한 일을 못했지요 이달에 우리는 계획도 달성하지 못한걸요 물론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은 까닭이지만서두……» 의외의 말에 지배인의 낯색이 단번에 변하였다。그러나 이런것쯤에 주저들 지배인은 아니였다

«무식한 당신의 통계를 나는 믿지 않소 인제 옥녀 동무가 그 숫자가 얼마나 과학적이며 당신들이 얼마나 바보인가를 훌륭하게 증명할 것이요……»

«지배인 동지! 인제 모든 것이 환합니다 알고 본즉 이 콩은 제게로 올 것이 아니라 생산 과장에게 갈 것이였습니다그려» 지배인은 믿은 나무가 꼬꾸라지는 것이 몹씨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배인이 슬그머니 이 곳에서 빼소니치려고 할 때 옥녀가 지배인을 찾아 문어구에 나타났다。지배인은 인제 옥녀가 자기를 도와 주려라고 생각하니 금새 새로운 기운이 전신을 통하였다。

«옥녀 동무! 마침 잘 왔소 동무가 오늘 지배인에게 130프로라는 허위 생산 숫자를 내 드렸습니까?»

박령감이 묻는 말이다。모든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던 옥녀는 딱 잡아 뗀다。

«아니요! 전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지배인 쪽을 향해 머리를 홱 돌리면서 날카롭게 말하였다。

«지배인 동지!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자기의 당적 량심을 저바릴 수 없어요 저를 그냥 로동하게 해 주서요 그리고 저에게서 아무 것도 바라지 말어 주십시요 저는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겠어요……»

지배인의 얼굴은 마치도 초겨울 된 서리를 마저 꾸겨진 가랑잎과도 흡사하였다。

지배인의 뒤죽 박죽된 심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은 없었다。눈 앞에서『공든탑』이 왈칵 무너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은 그는 풀없이 나가면서도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계속 중얼거렸다。

—함부루 덤벼 들지 말소 사업적으로 말해야지 좋소 좋아… 이 사람들에게 규률 문제를 적용해야 하겠군… 생산 숫자는 덮어 두고라도 지배인 명령에 로골적으로 반항하다니 배은 망덕도 분수가 있지…—

어느덧 보라빛 저녁 노을이 활짝 나래를 펼치여 대지를 아름답게 물드리고 있었다。

리영춘 삽화

현장은 보지 않고

송용남 그림

요청이 간절할 때… 수락되였을 때… 소유된 후 보관할 때…

일부 건설장들에서는 귀중한 자재를 애호 절약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현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애 멕이는 상투귀신

장진팔 그림

우리 설계 부문 사업에서도 상투, 게다 귀신의 농락질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설계 일군들은 아직도 공명심에 포로가 된채로 설계 사업에서 급속한 개진을 가져오는데 매우 굼뜨다.

예술적인 설계

어느 설계 사업소에서……

계획부에서 일하는 녀동무 둘이 점심 시간에 제1건축 설계 부장 책상 우에 놓인 아빠트의 설계도에 눈이 쏠리였다.

『야! 굉장 하구나!』

『참! 훌륭하죠 이것 봐요 얼마나 문화적이예요 방이랑 도서실이랑 유보장이며 그리고 목욕탕과 리발소 상점! 이런 아빠트를 각지에 많이 지으니 얼마나 좋아요!』

『참 옛날 같으면 꿈 같은 이야기야!』

『우리들의 생활이 향상된다는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아빠트에서 어서 살았으면……』

『언니도 빨리 준비해요』

『준비! 하하하』

두 처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였다。

× ×

얼마 후 그들은 전날 회의에서 많은 결함이 지적된 새로 짓는 건물의 설계도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이건 정말 그래요 회의에서 모두들 내부야 무엇이 되든지 간에 겉 치레만 한 셈이라더니……』

『뭐?』

『이것 봐요……설계가 늦어서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는건 말 할 것도 없거니와 더 중요한 문제는 내부 구조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기엔 여간만 불편스럽게 되였대요 방이며 변소 출입문 등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채광상 고려가 잘 돌려지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시공하면 누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거라구요』

『지내 복잡스럽게 된 모양이구나』

『잔뜩 공명심에 사로 잡혀 실제 사용하기에야 어떻던 간에 「특별」 한 건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벼라별 장식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나요』

『그러니 해당 부문 일군들의 실제 사용상 편의는 고려를 두지 않고 오히려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설계를 한 결함이 있다는게로군……』

『그래서 설계상 이렇게 불필요한 장식이 너무 많다 하여 설계 심사국에서도 ―장식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라―고 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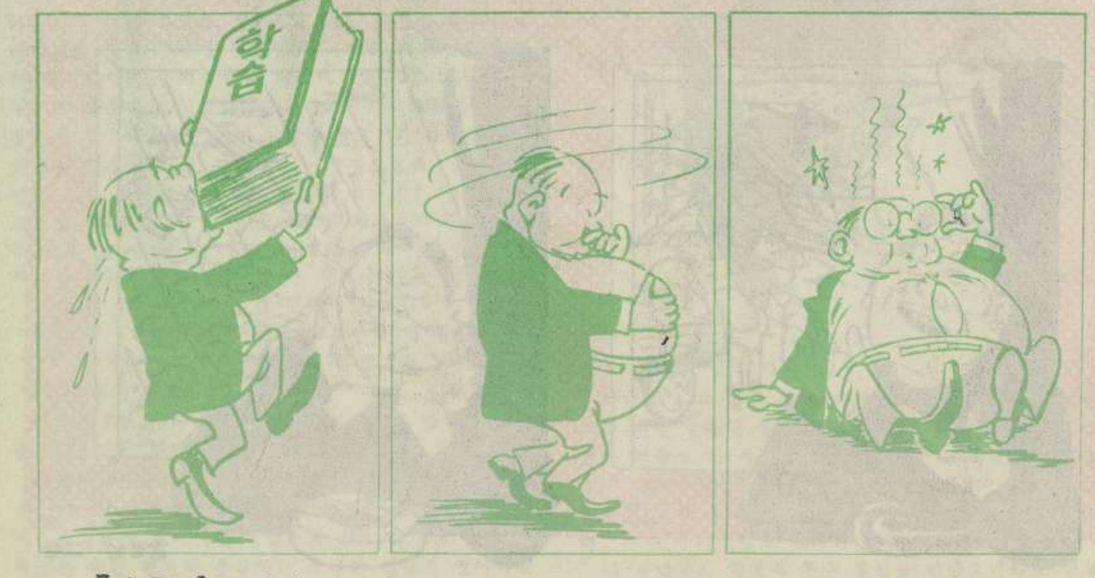
『선진 문화를 섭취한다구 해서 이렇게 통채로 삼키다간 소화불량이 되지……』

『소화 불량?! 언니두…이걸 설계한 동무는 위가 튼튼해요……』

× ×

그러나 이 설계도에 나타난 결함들이 일부 설계 일군들 속에 남아 있던 『상투귀신』 과 『게다귀신』 의 숙청과 함께 시정되고 있다니 다행한 일……

(류 달)



통으로 먹고 나니　　센트리 바람에 머리가 핑핑…　　천지가 아득…

경 구

오뉴월 쉬파리 코구멍에 모여든다

안창수 그림

『파리는 모든 병균
　　매개물이라오
주위를 청소하오
　　깨끗이 청소하오』
북새동 사무장"님"
　　련겊어 말 하는데…
파리들의 참모부엔
　　정찰병이 보고하는 말
『아뢰오! 북새동 일대에
　　오물이 있나이다』
참모장 고개를 끄덕 끄덕
　　『이봐라! 날 따라 북새동으로!』

우산 하나 주오

모―터는 어정 어정
　　자재 창고에 나타나
『억수 장마 퍼붓는데
　　우산 하나 나에게 주오』
창고는 텅 비고
　　한가로이 지내던
　　　거미 한 마리
『모―터가 어떻게
　　예까지 왔소?』
『허 참…자네는 팔자 좋네
　　우기 대책 말만하는
　친구들 믿고 있다가
　　내 신세 이꼴이 됐네!』

도적에게 열쇠를 준다

송용남 그림

대강 대강 겉만보고
　『똑똑하고 으젓하오』
쥐인지 도적인지
　가성 없이 소개하며
덮어놓고 받아주는
　너그러운 일부 『어른』 들
깍드시 허리 굽혀
　열쇠를 받아쥔 도적놈
있는 『열성』 다 하면서
　틈서리만 노린다오

실과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재정 부문의 일부 일군들이 드나드는 방 안에서 들리는 말을 록음한다면……

× × ×

『여보게! 요즘 김동무에 대하여 아름답지 못한 말이 들리는데 자네는 모르나?』

『오라―참 나도 들었는데 지난번 시장 단속할 때 들어온 물품으로 한몫 본 모양이던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옳지 못한데… 그 친구가 어느새 「먹는 병」 에 걸린 모양이거든……』

『그러니 말썽이라이…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샘물 자친다더니 한사람의 잘못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냔 말야……』

『그런데 김 동무가 한 「몫」 보았다는건 도대체 어떻게 된 문제인가?』

『말이 났으니 말이지 웃지 못할 일이라니… 어쨌든 김 동무의 「수완」 이 어지간 하거든』

『그야 「위신」 있지! 원체 「림기 응변의 묘책」 을 잘 쓰니까……』

『글세 여보게! 김 동무가 묘한 방법을 썼데 그려… 그 물품이 관리소에 넘어간 것을 알고서는 「제의 집에서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겨서 부탁하오니 적당히 배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관리 소장에게 친히 편지를 보냈다니 그야 제때 그 물품이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겠지』

『이를테면 관리소에 잠간 보관시켰다가 찾아 온 셈이로군…… 하긴 그럴듯 해 김 동무의 비범한 「창발성」 이 이번에는 「갑자기 필요한 일」 로서 발휘되였군 그래……』

『그게 다 오랜 「경 험」 을 쌓아온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수완」 이란거지……』

『말하자면 「게다짝」 시절에 물려 받은 「경험」 이란거야… 언제나 그 식으로 「형식은 사신이요 내용은 공문」 격인 편지를 보내기만 하면 탈감 없이 들어오니 말 없는 관료주의가 더욱 「위신」 이 있지 않은가……』

『말이 없다구? 그러나 지난번 회의에선 김 동무 입에다 방울을 달아 놓으라고 했다던데』

『아니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김 동무가 하두 자기만이 잘했노라고 떠들어 대니까 입에 방울을 달아 놓으면 입을 벌릴 때마다 방울소리가 날테니 좀 떠드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는거지』

『허…… 그건 묘안인데 그랬으면 그사람의 「공명병」 도 고쳐지겠는데…』

『김 동무가 고아대기는 잘하지만 그래도 하부에 대해선 「아량」 이 있다던데… 듣자니 하부 일군들에게서 부정한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보아주는 편이라면서 「재정 부문 일군들은 그럴 수도 있다」 고……』

『그게 탈이란 말야…… 「선심」 쓰면서 한 「수」 보는데는 빈틈 없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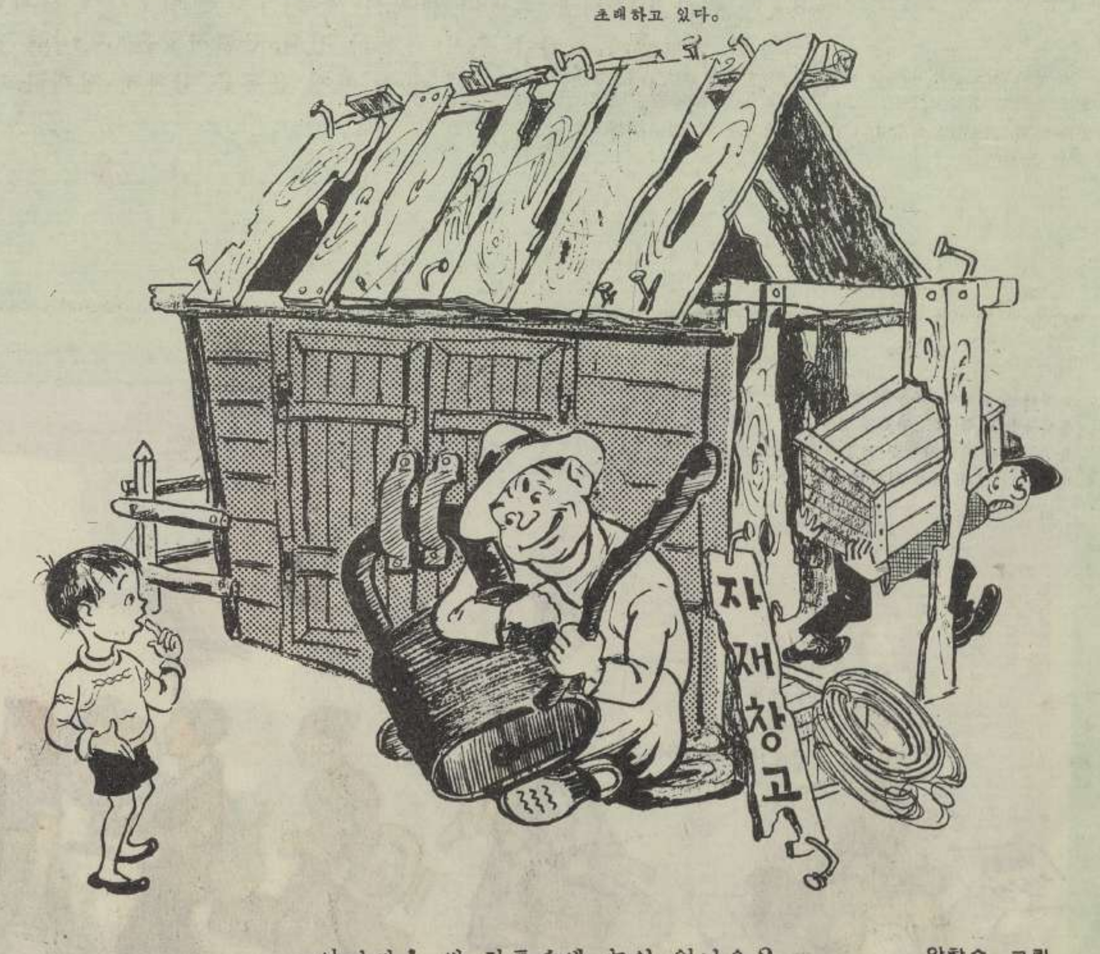
『그러니 「념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 격이란 말야…』

『여보게! 김 동무가 제때 시정하도록 충고를 주어야겠군…』

『하긴 그래…실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더니 이런 「병」 에 걸린 친구들로 해서 국가 사업에 큰 지장을 준단 말야…』

똘똘이의 의문

일부 기업소에서는 귀중한 기자재의 보관 관리 사업을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등 뒤에서 절취 랑비하는 엄중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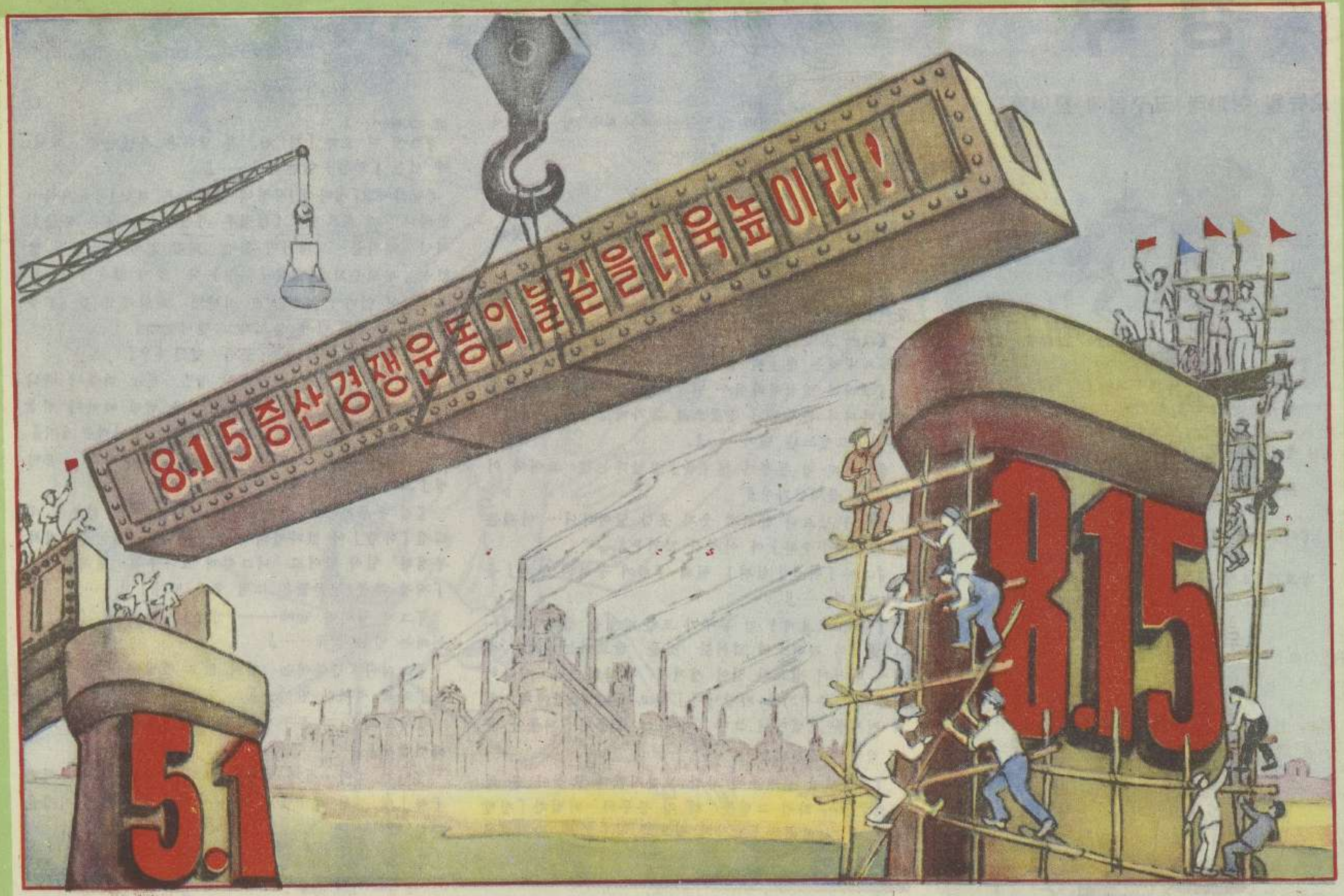


―아저씨! 왜 뒤통수엔 눈이 없나요?

―앞만 보라구 없단다!

안창수 그림

장엄한 전진



최한진 그림

8 • 15 해방 10주년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 성과로써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5 • 1절 경축 경쟁 운동에서 떨친 승리의 기세도 높이 8 • 15 경축 경쟁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화려한 전망

안창수 그림

영웅의 땅에 억세인 인민들
민주기지 다지며 나아가는 앞길을
그 어떤 장애도 방해하지 못하며
태산도 준령도 막지는 못한다

어려운 이고비 힘차게 넘으면
아름다운 이땅에 새날이 밝아
끝없는 행복은 물결치고
부강한 조국은 천만년 번영하리

발차 시간이 되였다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떨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매개 탄부들과 용해공들 건축 로동자들과 벌목공들 직포공들과 어로 일군들 농민들 및 전체 근로자들은 모두가 8 • 15 10주년 경축 증산 경쟁운동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온갖 창조적 로력을 발휘하고 있다。

송용남 그림

주인 잃은 밭

—저 밭은 왜 잡초가 저렇게 무성해요?
—어디 누가 관심을 돌려야지…
—저런 훌륭한 꽃밭이 될번 했군요

리영춘 그림

본격적인 제초기가 박두하였다。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때 김매기에 열성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건달뱅이의 다수확 꿈

벌레—흥 또 자는구나…

벌레—흥 꿈이나 꾸시요

건달뱅이— ?

최한진 그림

일부 농민들 중에는 심어만 놓으면 제절로 되는 줄 아는지 전랑 건달만 부리면서 다수확 꿈만 꾸고 있는 안일 무사 해괴한 경향이 있다。

쥐의 이야기

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쥐다。

지난 이른 봄 어느날 나는 일년동안 살아 온 홍포 농업 협동 조합 창고에서 춘경 파종시 보충 식량으로 사용하려고 절약해 둔 보리쌀 가마니를 한창 쏠고 있을 때 일이였다 누군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그만 깜작 놀래서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 할닥거리며 간이 깨알만 해서 구멍 밖을 내다 보는데

『망할 놈의 쥐새끼들을 없애 치워야겠는데』하고 욕하는 것은 관리 위원장 리 대신이였다。그는 또 무슨 생각을 했던지

『쥐를 잡을거야 없지 큰 독을 모아 오면 될걸 가지고』이렇게 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날 저녁에 작업 반장 회의를 하는 방고래 속에 내가 숨어서 듣자니 관리 위원장은 반장들에게

『래일 아침에 각 반에서는 큰 독 한개씩을 모아 오시요 창고에 쥐가 많아서 보리쌀을 넣어 둬야겠소』라고 지시를 했다。이 말이 끝나자 누군지

『성가시게 독을 끌구 다니느니 쥐를 몽땅 잡아 치웁시다』라고 말했다。『귀중한 낟알을 한알이라도 쥐에게 먹일 순 없소 군소리들 말고 독들을 모아 오시요』 관리 위원장은 좀 큰소리로 한번 더 다짐을 두었다。

그 이튿날 32두의 보리쌀은 독안에 차곡 차곡 보관되였다。며칠 후에 가만이 보니 창고 곁에 있는 관리 위원장네 집에선 두 개의 독에다 술을 해 넣느라고 쌀과 밥을 여기 저기 흘려 놓았다。나는 우선 실컷 먹고 구멍으로 날라갔다。

어느날 나도 한잔 먹고 싶은 충동에 창고 대들보 우에 발발 기여 올라 갔다가 코를 쿡 찌르는 술 냄새에 취해서 하마트면 미끄러져 떨어질번 하였다。

또 하루는 관리 위원장네 집 천정으로 살작 올라 가본즉 관리 위원장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술상을 차려놓고 이런말을 했다。

『춘경 파종시에 조합원들의 기세를 높이기 위하여 탁주를 두어독 했는데 맛이 어떤가 한잔씩 해보기요』

『거 참 좋은 생각을 했는데요!』몇사람은 이런 감탄까지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술 먹은걸 알면 조합원들이 또 말썽을 부리지 않을까?』

『지난 겨울에 위원장네 나무를 할적에도 조합원들을 동원한데 대해서 말성들이 많았는데……』

『걱정도 팔잘세 술맛 좀 봤기로서니 말성될게 뭔가』그들은 이런 말들을 주고 받으며 밤 늦도록 탁주 추념을 했다。

나도 한잔 먹고 싶은 생각에 안달이 났으나 할 수 없이 침만 꿀떡 삼키였다。그 후에도 이런 일은 가끔 계속되였다。

봄날 하루가 1년 농사를 결정하는 춘경 파종은 시작되였다。조합원들은 매일 벌판에 총동원되였다。어느날 내가 창고 뒤 풀숲에서 장난을 치다가 잠간 쉬고 있노라니 하루 일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조합원들은 이런 말들을 주고 받았다。

『요지음 관리 위원장은 그림자도 보기 힘드니 어찌된 일일까?』

『매일 회의니 뭐니 하고 핑계만 대고 돌아 다니는 걸 어떻게 본단 말이요』『벌써 모내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가끔 준다던 탁주는 한번 빛갈만 뵈고 말았으니 대관절 어찌된 영문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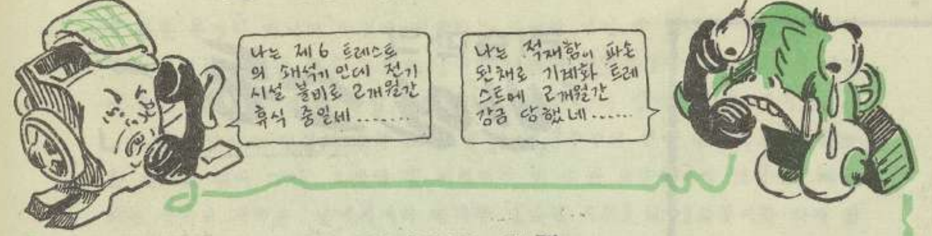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 뒤에 조합 검사 위원회는 갑자기 창고 검열을 하더니 조합원 총회가 열리였다。조합 검사 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많은 조합원들이 토론을 했다。

『조합의 재산은 우리들 자신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료주의자들과 건달꾼들이 술독 속에서 헤염을 치는걸 알고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우리 조합원들은 더욱 단결하여 참다운 주인 답게 일하며 각성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나는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을 좀먹는 옳지 않은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가를 알았다。그후부터는 창고 관리 사업을 어찌도 심하게 하는지 나는 아무 것도 얻어 먹기가 어렵게 되였다。나는 할 수 없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창고를 찾아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석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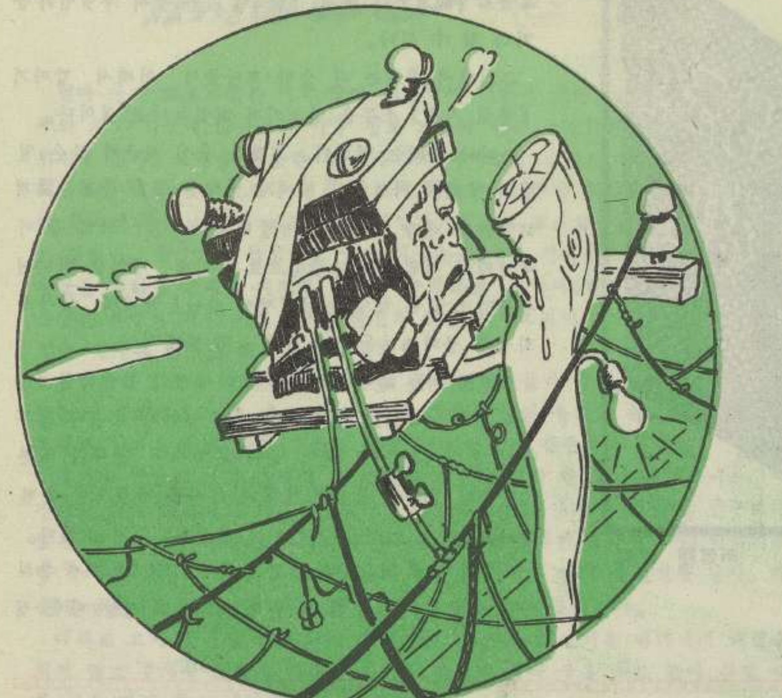
랑비현상 이모저모



까마귀도 거절

—자네! 매우 낯이 익은데 멸대가 아닌가? 아주 영 몰라보게 됐네 그려…
—여보게 까마귀! 우리를 제발 좀 데려가 주게 이러다간 뼈도 안남겠네
—아니 자네들이 지난 겨울에 동해안에서 떠날 때는 소금을 잔뜩 먹은걸 봤는데 그렇게 썩을 수야 있나 원?!
—우리 점장님이 밤낮 갈치 조기 같은 생선만 자랑하는 바람에 이 무더운 여름까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노라니 이 꼴이 되였네
—거 참 가엽게 됐네! 그러나 그 지독한 냄새엔 우리 까마귀도 숨이 막혀서 구미가 당기지 않는걸 미안하네…

억망 진창



—여보게 전주! 골이 쑤시고 열이 나서 나는 죽을 것만 같네 자넨 좀 견딜만 한가?
—여보게 변압기! 말 말게 피차 일반일세 그게 진땀만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금방 쓰러질것만 같네
—전선들을 거미줄처럼 되는대로 느리고 귀중한 전력을 물 쓰듯해서 편방 사고를 내니 이런 몰렴치가 어디 있나?
—너무들 편안하면 고마운걸 모르는 법이야! 그러니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말보가 얼크러진 전기줄처럼 억망 진창이란 말일세!

최영근 그림

록음실

질색할 일

정윤성 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의 건설 직장장 동무는 공사 대상 30건에 로력 290공수를 배당한 지배인의 지시문을 받았다。

『무슨 일이든지 선후차를 가리여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푹푹 자리가 나서 사람들을 흥겹게 한다』고 직장장은 생각한 끝에 290을 485공수로 숫자를 늘쿠어서 사업 조직을 했다。그래서 각 브리가다원들은 운반이며 목공반 등으로 거의 3일에 한번씩 새로운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익숙지 못한 일에다가 그 우에 또 언제 이동될지를 몰라 로동자들은 저마다 공무니에 점심 그릇을 차고 일을 해야만 하였으니 왜 그들에게 의견이 없으랴…『만능공을 양성할 모양인지? 오늘은 이리 가라 래일은 저리 가라 이런 방랑 로동에는 정말 딱 질색일세!』

사업은 『간단 명료』하게

함흥 식료품 공장 지도 일꾼들은 사업은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8·15 10주년 경축 증산 경쟁 운동 조직을 매우『간단』하게 지도하였다。

증산 경쟁 의무 조항 토의시에도 간단히 하느라고 일부 간부만 모였고 또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5. 1절 증산 경쟁 운동 조직 당시에 수립한 조항들을 펼쳐놓고 토의하였다。

드디여 8. 15 증산 경쟁 의무 조항이『명료』하게 벽보판에 나붙었다。『종이만은 새것이지만 내용은 5.1절 때와 꼭 같군… 그럴바에야 5. 1절을 지우고 그 옆에 8. 15라고 쓰면 더 간단히 해결될게 아닌가?』

이것은 휴식 시간에 게시판 앞에 모였던 로동자들이 아연 실색하여 하는말…

농기계『전람회장』

『여보게 저기 줄러러니 서서 비를 맞고 있는게 무언가?』
『농기계 라네!』
『버린건가?』
『보관한거라나 그런데 저렇게 계속 내팽겨 두면 결국 "고자재"로나 회수 할 수 밖에 없겠지… 지금 농촌에서는 이 농사 철에 농기구가 부족 할 터인데!』

농업성 자재 창고 앞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였다。

일부 농업 부문 일꾼들은 농기구는 철을 놓치지 말고 제때에 농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은 훌륭히 하지만 막상 새 농기계를 받아 들이면 농장이 아니라 드려 설데도 없는 창고로만 보내 버린다。

일이 이렇게 되여 우기 대책도 없이 밖에다 잔뜩 쌓놓고『구경』만 시키고 있으니 차라리 "농기계 전람회장"이라고 간판을 써 붙인다면 제법 어울리지 않을까?

—량심 있는 조선 사람치고 그 누가 너희들이 준 총칼을 감히 자기 동족들에게 겨눌 수 있단 말인가?

안 된다!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 미국제 총칼로 겨누기를 원치 않는 남조선 청년들은 반전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리영춘 그림

리승만의 「반일 소동」

리승만은 요새 졸개들을 긁어 모아 『반일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소란스런 잡음을 한바탕 퍼뜨리려 하고 있다. 왈—번 외무부 장관 성명이니 왈—갈 공보처장 특별 담화니 이러쿵 저러쿵 그의 졸개들로 하여금 한바탕 짖어대게 하드니 리승만 자신 마저 진해 별장에서 기여 나와 소위 『일본 규탄』의 일장 설화를 떠버렸다.

리 승만이가 로망에 이번에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단 말인가? 매년 수백만석씩 일본에로 백미를 실어내며 그 자신도 일본 친선 방문이니 주일 대표부니 하여 해방 후 요시다 반동 정부와 맞장구를 치면서 저들끼리 거래도 합네 하고 제법 친분이 자심하더니 갑자기 무슨 번덕 바람이 불었단 말인가?

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서는 일본 규탄의 광풍이 련일 계속되고 있으니……

그런데 『반일 데모』에 참가한 군중들의 대개가 『대한 로총』과 경찰들이라고 하는바 더 설명이 없어도 그들의 『데모』나 소위 『군중』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문제는 리 승만 도당들이 어째서 갑자기 『반일 시위』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뻔하다. 그것은 우선 최근에 있은 일련의 국제적 사변들이 미제의 뱃속을 부굴 부굴 끓게 하였는바 대강 들어봐도 뉴델리 회의 반둥 회의 등 아세아에서 진행된 사변들만으로도 전쟁 방화를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대양 건너 『전쟁 상인』들에게 있어선 확실히 불쾌스러운 일이였던 것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판에 미제가 아세아에서의 믿음직한 『방공』 지주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던 일본의 요시다 정부마저 붕괴되고 새로 들어 앉은 하또야마 정부가 일본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중국과 통상을 맺었으며 론던에서는 쏘 일 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더우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남 일 외무상의 대일 성명에 뒤이여 일본 무역 대표단의 평양 방문 결정 등은 분명히 미제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당황 실색한 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궁리한 나머지 결국은 『반공 투사』로서 제멋에 들뜬 리승만을 시켜 『반일 시위』의 소란극을 꾸며 발악하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중국 쏘련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의 새로운 관계로 하여 그만 오장이 홀 뒤집어진 리 승만 도당들에게 있어선 제때 되는 상전의 사촉을 받게되지라 한바탕 『반일 시위』의 생화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만도 사실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반공 장단』에 가랭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달 떨어지고 길 잃은 여위격이 된 리 승만을 내세워 이번에는 『반일 시위』의 소란극을 놀게한 미제는 슬쩍 『두개 독립 국가 간의 분쟁』이여서 말하기는 딱하나 남조선에는 반 공산주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업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나라가 협력한다면 그들은 동북 아세아 지역에서 자유 진영의 주요한 근거지로 될 것이다』라고 능청스럽게도 『점잖은 호소』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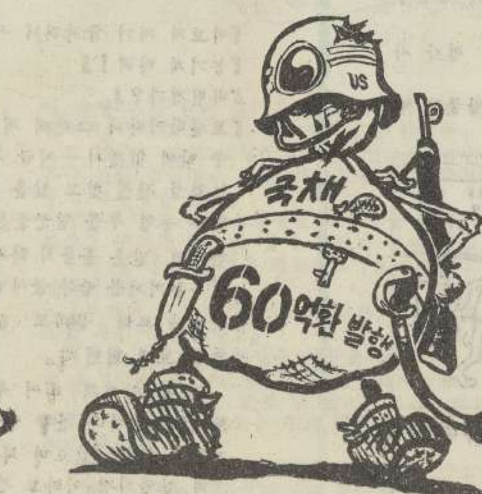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게 손 쉽게 독장사 구구대로만 들어 맞아야 말이지……

돌차면 제 발뿌리만 아프더라고 손 안맞는 도적질에 안달이난 미제의 신세도 신세이려니와 상전의 장단에 갑자기 미쳐서 『반일 시위』에 거품을 물고 허위적거리는 샙살개 리 승만의 몰골이란 더욱 가소롭다.

(무 경)

미국식 략탈의 이모 저모

미국식 『원조』에 의하여 모리장화 한 리승만 괴뢰 국회 의원들에게는 미제의 소위 『잉여 군수 물자』의 경매가 제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채 람발에 신바람이 난 미제와 리 승만도당들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광

불교도들 사이에 류혈의 참극을 벌여 놓고 어부지리로 한몫 보려는 미제와 리 승만

백인균 그림

****

낚시에 걸린 간첩

얼마 전에 고로꼬질은 미국 중앙 첩보국에 대하여 썼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있어서의 미국 첩보 기관의 활동 조건들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해 졌다. 쏘련을 비롯한 각 민주주의 국가들로 파견된 간첩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려고 했으나 전혀 최초에 계획한 그 주민 지대는 고사하고 도리여 류치장 속에 머물게 되였다. 언제인가 "워싱톤 포스트"지는 이렇게 썼던 바 있었다. 즉 "중앙 첩보국의 중요 직무는 미국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고관들을 위하여 군사적 외교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만큼 이 사실은 분명히 미국 외교관들을 불안케 하였다. 그러니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밀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쩌나? 고급 관리들을 도우려고 군사 전문가들이 왔다. 미국에서는 날고 있는 비행기에다 이국 땅으로부터 직접 간첩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장치가 현재 탐정 기술의 최신 "걸작"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 중앙 첩보국 간첩의 한 사람인 미국 비행사 존 토마쓰 다우니는 이 장치에 대하여 쓰고 있다. 즉 "길다란 바오라기가 권양기에 감겼다. 갈구리가 있는 바오라기의 끝은 비행기에서 밖으로 내놓인 장대에 고착시킨다. 비행기는 땅 우에서 간첩이 쥐고 있는 바오라기 매듭을 낚시가 걸어 올릴만큼 난다. 다음에 권양기는 돌기 시작하여 간첩은 비행기에 끌려 올리운다.

대체로 고기 잡이에 비슷하다. 구별되는 것은 밀정 고기는 바다에서 헤염을 치지 않고 륙지에 앉아서 어부가 자기를 낚시에 걸어 구름 우로 끌어 올릴 때를 목을 길게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신제품의 적용은 합중국 령로에서 그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찬란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존 다우니는 그가 이미 밀정들의 큰 크룹을 양성한 아쯔기(일본)로 파견되였다. 곧 중앙 첩보국의 지방부 장관은 다우니가 서울로 출발하여 지방에서 간첩들을 훈련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리 승만의 종복들은 낚시 장치를 련습하기 위하여 온갖 것을 보장하였으며 심지어 결사적으로 낚시에 매여 달리는 자와 치명적으로 놀라는 자 또는 태연하게 비행기로 걸려 올라가는 숙련된 병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여 다우니는 상부에서 시인한 행로를 따라 "미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고관들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한 그 간첩들을 끌어 올리려고 동북 중국으로 날았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 사건은 벗드러지게 시작되였다.

그러나 존 토마스 다우니는 낚시에다 간첩을 걸어 올리기 위한 장치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중국 예심 기관에 진술서로써 써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으로 보아 그 장치가 미국에서나 남조선에서 보다는 특별히 중화 인민 공화국 령토에서는 불성공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고급 낚시를 가진 미국 "어부들"을 다만 중국에서만 잡아 내는 것이 아니다. 자 또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밀정들의 "긴밀한 련합"이 또 어떤 기술적 신 제품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인가?

고로꼬질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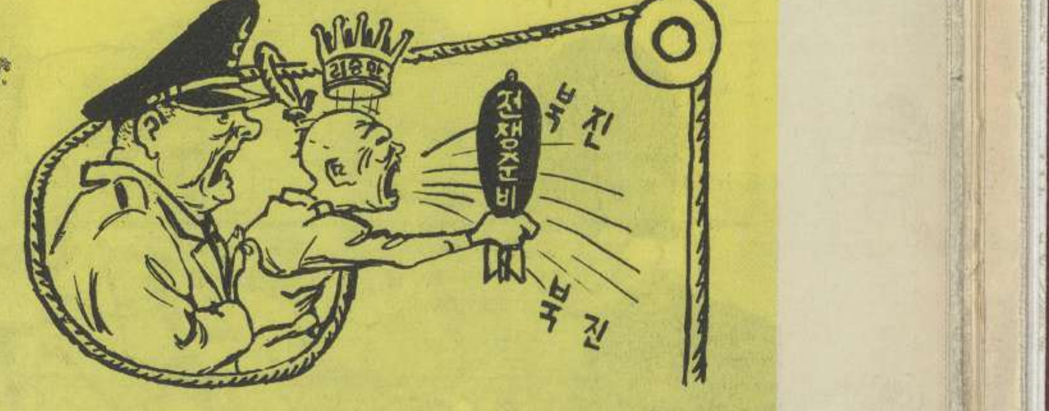
고·쎄르게예브

(한 동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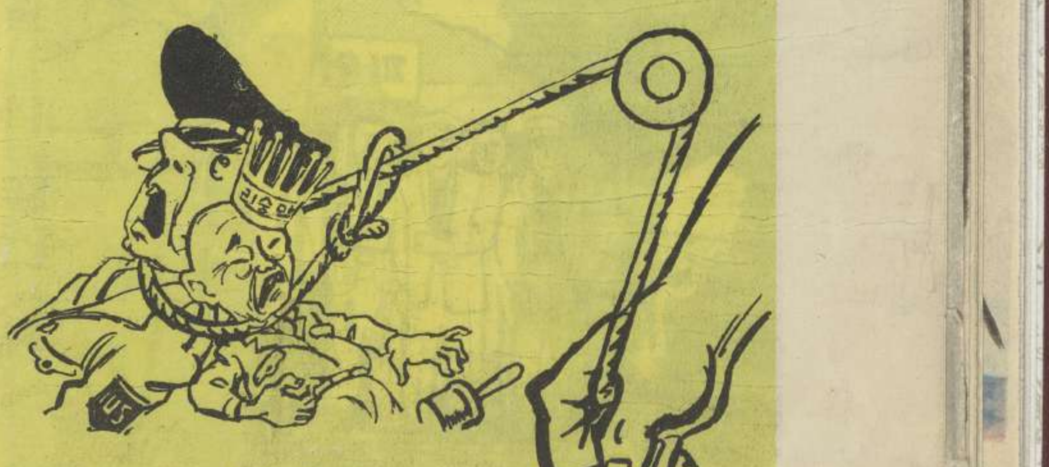
필연적으로 멸망한다

깔고 앉아서…

먹구는…



웨쳤다…



그 결과는…

박승히 그림

—눈알이 팽팽…… 정신이 아찔 아찔……

미 제국주의자는 일본을 원자탄 저장소로 만들고 있으나 일본 인민들의 반대 투쟁에 봉착

영국에서의 파업 원인

—무엇때문에 파업을 하느냐?

—너희들이 전쟁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박승히 그림

아이크의 원자대피

6월 15일 낮 12시 5분 미국 수도 워싱톤에서는 귀청을 찢을 듯한 긴 공습 경보 싸이렌이 울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누구와도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워싱톤에 공습 경보가 울렸다는 사실 자체는 그 무엇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여 줌에 틀림 없다。그것은 워싱톤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 경보를 잘 못 울리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유 에쓰•아이•에쓰 통신 보도에 의하면 공습 경보가 울리자 대통령 아이크 (아이젠하워의 별명)는 전체 각료들과 워싱톤시의 31개 정부 기관에 있는 1만 5천명 관리들을 인솔하고 워싱톤으로부터 50마일 내지 300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비밀 방공굴로 급히 피난하였다는 것이다。

비밀 대피소에 이르자 아이크는 텔레비존 방송을 통하여 『이것은 정부가 원자탄 폭격을 받는 것과 같은 비상 사태 시에 그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피 련습』이라고 하였다。

미국 통신 보도들의 보충적 보도들에 의하면 이것은 원자 및 수소 폭탄에 의하여 『전국 도처가 파괴』되였다고 가상된 조건 하에서 실시된 『지금까지의 민간 방위 련습 중 최대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즉 이 원자탄 공습에 관한 소동은 다름 아닌 바로 아이크를 비롯한 미국 정부 지도층의 발작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것이 우선 명백한 것이다。

밑천 잃은 투전군이 개평으로써 한몫 보는 수는 간혹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정치적 파산자가 그의 밑천을 다시 얻기란 투전판의 개평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아이크—덜레스의 침략 전쟁 정책이 얼마나 미국 인민들 자체 내에서까지도 진망을 잃어 버리게 되였는가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이크는 마치도 쏘련이 미국을 위협하며 쏘련의 원자 폭격기가 미국을 습격이나 하려하고 있다는 듯이 허위적으로 사태를 묘사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미국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위신을 다시 추켜 세워 보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군비 경쟁 정책이 당연하다는 듯이 인민들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아무도 아이크나 또는 미국의 머리 우에 원자탄을 휘두르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도리여 원자탄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장군들과 제독들이며 쏘련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데 대하여 거듭 제의하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아이크의 원자 대피 소동은 전적으로 무근거한 데로부터 출발한 소동인 것이며 그것은 오직 월가 독점가들의 최고 리윤을 위하여 좀더 쉬운 말로 하자면 더 많은 딸라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조작해 낸 히스테리임이 아주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크의 원자 대피 소동을 이렇게만 평가한다면 아마 아이크 자신이 나무려워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 기관들은 이 방공 련습 기간 중 3일 간이나 계속하여 지하굴들에서 밤과 낮을 새웠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되는 것은 얼마 전 『뉴욕 헤랄드 트리뷴』과 같은 미국의 신문까지도 오늘날 미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원자 히스테리를 신랄하게 풍자한 만화를 발표한 사실이다。

그 만화는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여 있는데 첫 부분은 『문명의 려명』이란 제목 하에 인간이 동물계와 갈라져서 동굴로부터 밝은 햇빛을 바라보며 기여 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둘째 부분은 『문명의 완전한 개화』라는 제목 하에 인간이 원자 폭발의 방사능을 피하여 같은 굴 속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전쟁을 겪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방공 지하 굴이란 아무리 좋게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지상보다 좋을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크와 그의 동료들은 아무도 그를 위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즐겨 지하굴 속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통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은 방공 련습 시에 『당신은 진짜 공습 경보가 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이 우물 거리겠는가』고 하는 경찰들의 고함들에 항거하면서까지 방공굴 속에 들어갈 것을 거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크의 취미는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름이 확실하다。그렇다면 그의 취미는 무엇이겠는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동굴 속을 즐기는 것은 동물의 습성이다。

또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견해에 의한다면 특히 전쟁 시기의 경험에서 판단 하건대 확실히 미국 침략자들의 습성은 야수적인 것이였다。

(전 동 태)

편집 위원 장 진 광 (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발 행 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 쇄 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인 쇄 1955, 7,1 ㄱ—30125
발 행 1955, 7,15 값(90)원

말이 많은 것은 로동 시간의 랑비이다
로동 시간에는 입을 잠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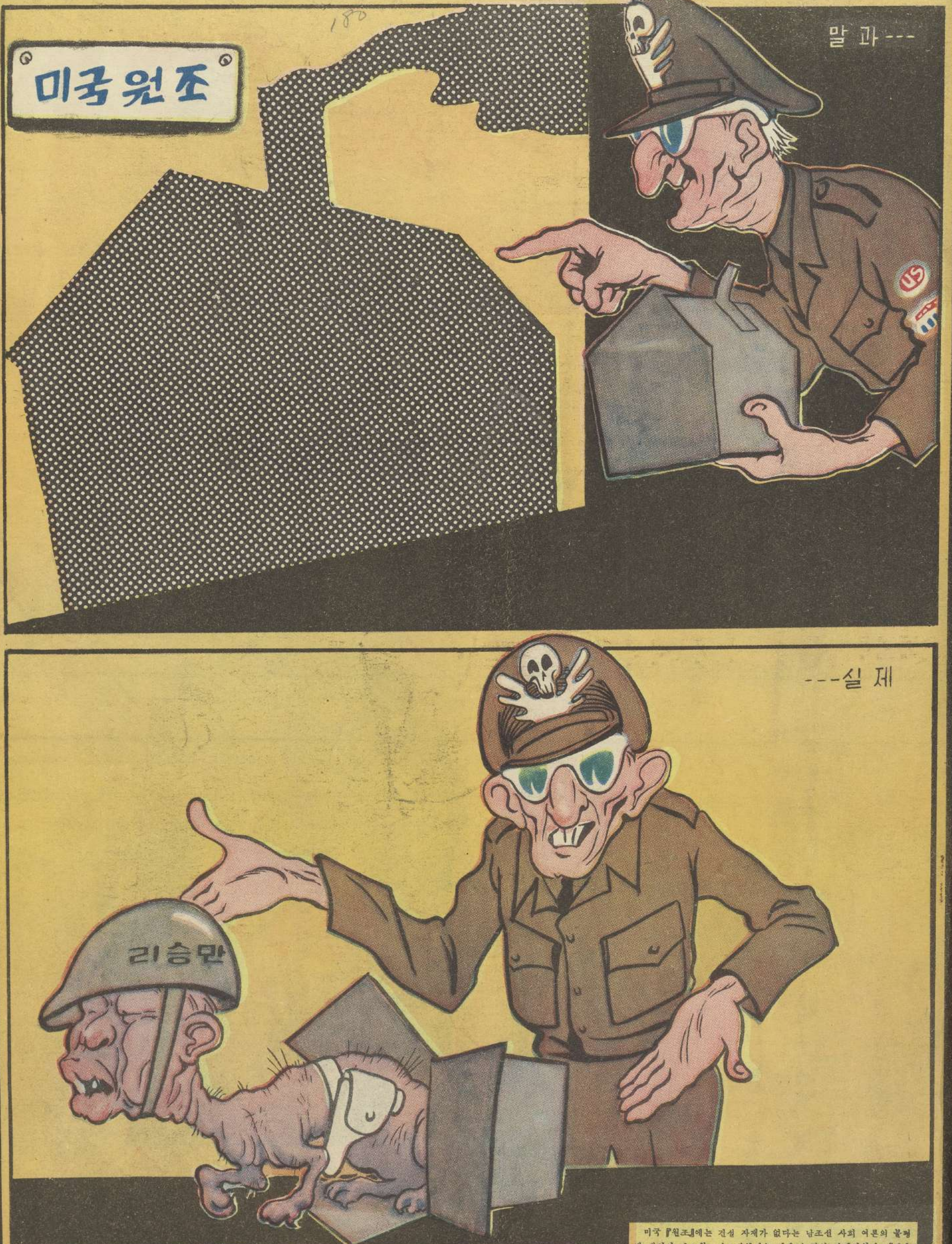
마야꼬브쓰끼의 작품을 일관하고 있는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끓어 넘치는 혁명적 정열,수령과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원쑤들에 대한 불 같은 증오심과 그의 전투적 선동성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교훈과 도움을 준다。그러므로 마야꼬브쓰끼의 창작은 시인 자신이 노래한 바와 같이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총탄이며 폭탄이며 깃발』로 되는 것이다。여러 신문들과 특히는 "고로꼬질"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야꼬브쓰끼는 국내 계급적 원쑤들과 국외 적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풍자의 칼날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출당 후보자

그들은 몇명인가?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옷은 되는대로
걸쳐 입고서
사무실 한 방에
잔뜩 틀을 차리고
류창한 연설로써
직무를 집행한다
그의 온 몸은
당 냄새를 피우면서
코를 높인다—
지붕보다도 더 높게…
종이 쪼박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읽어 버리고
종이 쪼박지가 없으면
자신이 써 갈긴다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순조롭게 되여간다
그는 말 공부쟁이다
당에게도
자신에게도
열렁 뚱땅 해 치운다
계급과의 련계는?
거기에 무슨 계급이!

그는 계급에게는—
장해를 줄 뿐
무거운
무용지물로 되여 버렸다
그와 함께는
걸어 갈 수도
타고 갈 수도 없다
그는 투사로부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반질반질 색 칠한
빛 좋은 개살구로 변하였다…
하루가 끝나면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조급한 신호를 하며
낯 익은 녀자에게
흔들 흔들 싱겁게
꼬리를 휘젔는다
그 친구들이
당 대렬로부터 물러났으면
당도
그들도
좋을 것이다

1929년 5월
마야꼬브쓰끼
한 동 신 역



장진광 그림

미국『원조』에는 건설 자재가 없다는 남조선 사회 여론의 불평에 대하여 막스월•더•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다。"리승만을 길러 내는데 30년이 걸렸소。너무 성급해서는 안될 것이요。이 사실과 대비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은 셈" 이라고…